

뜻깊은 마음입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 수료식 (2021. 02. 06.)



목 차

02 특별기고

04 회원기고 / 독후감

05 기고

06 활동보고

08 회계보고

10 환경영화 / 서적

11 환경상식

12 청기백기-청소년기자단

14 동호회 활동

15 정기총회 안내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그립습니다. 故 서한태 박사님!

글 | 박성원 집행위원

회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 배우의 기운 듬뿍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며 모든 일에 적용시키는 삶은 조금은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은 드나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 중 한 분이 故 서한태 박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시절 그리 자주는 아니었으나 몇 번 될 기회가 있었던 박사님에 대한 기억을 슬며시 소환해 볼까 합니다. 박사님께서서는 꽤 우람한 체형에 목소리가 매우 크셔서 처음 뵈었을 땐 바짝 긴장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박사님 사무실에 방문하면

“오! 자네 이리 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소.”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말씀 자료를 주욱 읽어 내려간 이후 의견을 청하시던 모습에서 백발 노인의 열정이 식지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기억을 자주 떠올립니다.

환경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질문에 쉽게 정리하여 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며 답이 잘 떠오르지 않지요. 고인이 되신 서한태 박사님께서서는 평소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治山治水 즉, 사람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을 되살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식생활을 개선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아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일이다”고 정의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참으로 쉽고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목포시에 건설 예정인 소각장 문제로 시민사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목포시 매립장이 허용된 양에 거의 도달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자 시에서는 소각장 건설로 쓰레기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박사님께서도 미래에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로 쓰레기 처리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운동을 통해 양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아끼며, 재사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를 간간히 곁들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소각장 건립으로 지역의 의견이 나뉘고 대립하는 현실을 넘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수립과 시민과 함께 감시하는 운영체를 구성하는 슬기로운 자세로 전환하여 생전 환경운동에 전념하신 지역 어르신의 경고에 화답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생전에 물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던 박사님께서서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일은 이미 목포시민을 넘어 전국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목포에 하천은 이제 생명을 다해 하수도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남해빛물펌프장 앞 유수지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건설 자제와 더불어 제시한 대안에 시당국 담당자들의 고민 없는 언행에서 씁쓸함이 묻어나옵니다.

유수지에는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해오라기, 도요새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해 온 것으로 조사되어 도시 인근에서 대자연의 신비를 지켜볼 수 있는 보물 같은 장소로 공존을 주장하는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나몰라 식으로 진행되는 시당국의 건축구조물 설치의 생태계 교란은 물론 천연기념물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심각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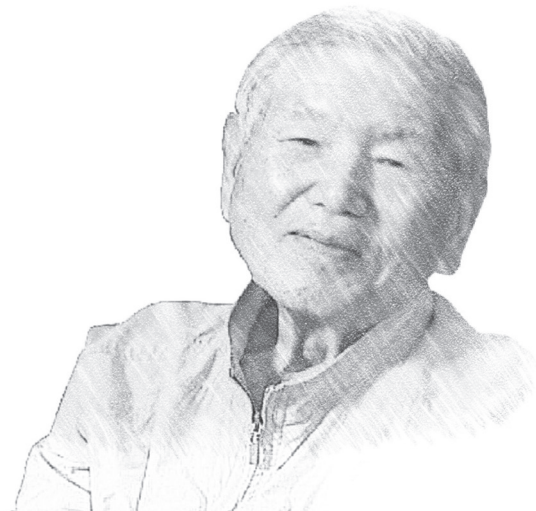
인간의 편리함만 보지 말고 자연과 생태계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故 서한태 박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젊은 사람들이 환경과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생명의 미래가 열린다는 믿음으로 항상 청년들과 대화를 마다하지 않으시던 어른의 호탕한 웃음이 그립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민이 모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잡아 이끌어 주신 따뜻한 어른의 손이 그립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두텁고 우렁찬 음성으로 잔을 드시며 외치던 건배사가 그립습니다.

‘모든 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모든 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 故 서한태 박사님 말씀 중에서



낮설음의 일상을 봄

글 | 우성주 회원

오랑캐 땅엔 꽃도 풀도 없어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이번 에코리딩(Eco Reading) 독서동호회 선정도서인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1906~1964)의 1962년 작품 『침묵의 봄(Silent Spring)』입니다.

『침묵의 봄』은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욕망의 대가를 인간 스스로 감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인간은 농업생산력 증대라는 핑계로 인간의 관점에서 이롭지 않은 생물체를 해충이라 규정하고 살충이라는 이름으로 박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살충이라는 인간의 자위를 보기 좋게 내성과 살생이라는 답으로 돌려주며 자연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출간 당시 농화학 회사를 중심으로 화학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단체(공공단체를 포함)에 비판을 받고 협박에 시달려야 했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유방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년 동안 담담히 세상에 알렸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비견되며 20세기 환경 문제의 새로운 역사를 쓴 책 『침묵의 봄』은 여성 과학자로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TIME지가 뽑은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레이첼 카슨의 대표작입니다.

마침내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시작된 연구로 특정 화학물질(DDT)과 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책이 출간되고 10년 만에 국가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2004년 스톡홀름 협약으로 국제적 규제가 적용될 때까지 수출용을 생산하였으며, 아직도 말라리아가 창궐(Malaria risk)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동남아 지역의 DDT 사용 문제는 『침묵의 봄』이 출간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가 사회경제적 문제 더 나아가 생존의 문제와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 주었습니다.



 소식지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사무국(061-243-3169)으로 연락주시시오

당신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글 | 박세영 집씨씨 소울푸드 커뮤니티 키친

페이스북 : facebook.com/gypsysseednhome 인스타그램 : @home_soil_soul_society



저에겐 제가 살고 있는 모든 곳, 이 지구 생태계가 곧 저의 '집'입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세계를 다니며 많은 것을 맛보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아낸 것은 훌륭한 요리 비법은 사실 잘 보이는 곳에 숨어있다는 것 같아요. 인도의 사티쉬 쿠마르가 얘기했듯 그건 '흙/마음/사회'이예요.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요리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차려본 기억은요? 온 마음을 다해 식탁에서 식사를 해본 적은요?

세계 요리란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깃든 음식'을 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차 한 잔을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부터 차트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는 것까지 음식은 모두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요리사도 농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을 존경하고 그리 되고 싶어, 방법을 찾는 길에 있는 한 청년이자 여성이예요. 더 나이가 들면 엄마가 되고 아이들과 하하 호호 우쿨렐레를 켜며 즐겁게 어울리는 할머니가 되어있을 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텃밭도 가꾸고 같이 요리해서 음식도 나누고 싶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맛'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요리하는 게 좋아요. 그 과정을 누군가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요리하면서 느끼는 경험들을 사람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혹은 맛을 통해서 느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순간을 즐기고 그 온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함께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집'은 요리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지요.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집을 위해 준비해 왔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와 마음이 나눌 수 있는 만큼씩 앞으로 이 '집'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집을 가꿔 나아가 볼까요? :)"

- 집씨씨는 큰길에서(트윈스타 맞은편, 세븐일레븐을 왼쪽으로 끼고 올라오면) 골목으로 살짝 들어온 한적한 동네에 있습니다. 주변에(무료/유료)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조금만 걸어와 주세요.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실 수 있습니다.
- 공간이 협소하여 혼자 혹은 친구와 차분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넉넉히 10명은 수용할 수 있으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매주 메뉴가 바뀌며, 신선한 계절 재료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10인분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금방 솔드아웃되는 경우가 있으니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뉴와 상황을 확인해주세요.
- 집씨씨의 매력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공간으로 다회용 용기(도시락 통/텀블러)를 가져오시면 10% 할인,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 슬로우한 삶의 양식을 지향합니다. 요리 또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준비됩니다.
- 급히 드셔야 하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천천히 음미하며 '나'를 위한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집씨씨는 식당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다양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날마다 워크숍 및 장터가 열리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하시길 하는 바람으로 (선지출) 쿠폰제(구매일로부터 6주 이내 사용가능)를 운영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 계절에 따라 영업시간 변동이 있습니다.



집씨씨 소울푸드 커뮤니티 키친 |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5번길 6



일

- 05일(화) 옥암중학교 환경교육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자회견(전남민주당사 앞)
/ 4차항만기본계획 정보공개 청구
- 06일(수) 전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방문 면담
- 11일(월) 해안동발전추진위원회 면담
- 13일(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온라인 워크숍
- 14일(목)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최송준) / 공익단체 IT인프라지원사업 zoom 사전 컨설팅
/ 지방배고 건강더하기 모임
- 15일(금) 총회 감사(회계-이승우, 사업-고윤혁)
- 20일(수) 뜨개마루 모임
- 21일(목) 제230차 집행위원회, 총회관련 회원우편발송 520통
- 22일(금) 목포시의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출
- 25일(월) 에코리딩 모임
- 26일(화) 해안동발전추진위원회 사무국 면담 / 뜨개마루 모임
- 28일(목)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유튜브 라이브 방송
- 29일(금) 해안쓰레기 조사 (해남 목동리)
- 31일(일) 해안쓰레기 조사 (진도 하조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해안동발전추진위원회 면담



· 제25차 정기총회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목표

- 01일(월) 삼학초 학교석면해체 모니터단 참여 / 정기총회 감사 문자 발송(총회 기사_목포시민신문)
- 03일(수) MBC뉴스 인터뷰(해안 플라스틱쓰레기문제) / 전남사무처장단 줌 회의
청소년환경기자단 2기 모집안내 발송
- 04일(목)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실사 방문
자원회수처리시설(소각장) 시민토론회 참여
- 06일(토) 에코트레킹 모임 /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 청기백기 수료식
- 08일(월) 지도위원 위촉장 우편발송 / 집스씨 카페와 제로웨이스트 협약 논의
- 09일(화) 뜨개마루 모임 / 설 연휴 회원 인사 문자 발송
- 16일(화) 영암신문(청소년 기자단 글 전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지부 간부단 면담 / KBS 전화인터뷰(제로웨이스트운동)
- 17일(수)故백기완 선생님 분향소 설치 / 세월호 7주기 기획회의(나무숲)
- 18일(목) 제231차 집행위원회/ 故백기완 선생님 단체 분향
- 19일(금)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시스템 관리 온라인 교육 / 홈페이지 재구축 논의
- 21일(일)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모임 유달산 둘레길 탐방
- 22일(월) 에코리딩 모임 / 입암천 우수지, 남해하수처리장현장 방문
- 23일(화) 북항회센터, 멩공이 서식지 현장 방문
- 24일(수) 입암천 우수지 공사 관련 성명서 배포
- 25일(목)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 입암천 우수지 공사 관련 하수와 면담
- 27일(토) 회원 마음대로 떠나는 우리지역 투어(서산온금 일대)
- 28일(일) 입암천 우수지, 2·3호 광장 도로 침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모임 유달산 둘레길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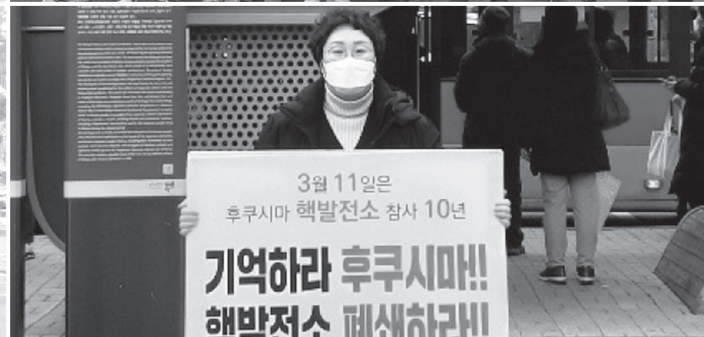
· 청소년환경기자단 청기백기 1기 수료식



· 에코트레킹 모임



· 故백기완 선생 추모



·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유)인동기업/(주)달빛언덕/(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구메/김민주/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들/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코롤방제과점/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지과의원/김의갑(장미신)/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성희/강영규/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해정/고경석/고광영/고광진/고광진/고광철/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규/곽진용/구봉성/국순천/권기별/권수한/기재명/김기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관일/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중/김명희/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방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진/김성희/김세나/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소영/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익/김유경/김윤열/김윤미/김음/김인순/김일용/김장원/김재기/김재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중수/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택/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해성/김해연/김현근/김현숙/김현숙/김현우/김형정/김형기/김형용/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나광봉/나영명/나연운/나천귀/나현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은경/류재청/마홍식/모원중/무관/문보현/문성중/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호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문욱/박미정/박민규/박배신/박병구/박상현/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순미/박안섭/박영윤/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정록/박종선/박중수/박중순/박중위/박지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용/박희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현철/박해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백동진/백성숙/백영규/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연순/서연선/서영옥/서정/서정만/서헌배/선호성/설지연/성보석/성상훈/손문선/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요삼/안정배/안혜영/안혜영/양덕수/양민우/양승희/양영상/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현/양효식/염미순/염승우/오경섭/오문환/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영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우성주/우준철/유경호/유기성/유대훈/유영근/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주훈/유지현/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성희/윤성광/윤성수/윤성우/윤종인/윤종일/윤종매/이경매/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선/이봉섭/이상엽/이상호/이승환/이수/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종환/이종훈/이주연/이준희/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희성/이현숙/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정원/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창용/장희용/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영호/전영월/전준수/전한숙/전형숙/정근오/정기문/정동욱/정병이/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순현/정연수/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유나/정유나/정윤안/정윤정/정인숙/정일/정재근/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석/조경민/조광운/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민/조옥현/조원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철제/조혜향/조후현/주성은/주인철/지이화/진선우/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국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순재/최승은/최승희/최영란/최영선/최영숙/최영식/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효봉/최화영/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양규/한은섭/하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명/홍정우/홍택용/황민수/황선주/황형수/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2월 결산보고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6,156,000
	단체회비	355,000
소 계		6,511,000
사업수입		0
후원금		370,000
기타수익		3,030,000
이자수익		0

[후원금]

- 후원회원 15만원 • 못난이미술관 소식지 후원금 5만원
- 모마리 소식지 후원금 15만원 • 뜨개마루 2만원

[기타수익]

- 워라벨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300만원
- KB국민은행 포인트 3만원

[2월 CMS 3차 3월로 이월]

[지출]

- 기타 - 사무국이전기금 적립 700만원

당월수입금	9,911,000
전월이월금	14,284,898
합 계	24,195,898

지 출		금 액
항 목		
회 비	교육사업	410,000
	조사연구	0
	홍보비	0
	행사비	0
	연대사업	532,880
	역량강화	1,816,080
소 계		2,758,960
회의비	총회비	393,080
	위원회비	120,000
소 계		513,080
인건비	급여	5,773,380
	복리후생비	1,187,160
	퇴직적립금	510,232
소 계		7,470,772
업무추진비	출장비	0
	활동비	40,000
소 계		4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400,000
	수선비	258,000
	도시인쇄비	36,000
	통신광열비	307,020
	소모품비	45,400
소 계		1,046,42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8,680
	보험료	100,000
	사무국이전기금	7,000,000
	지급수수료	300,120
소 계		7,508,800
당월지출금		19,338,032
통장잔액		4,857,866
합 계		24,195,898



노 임팩트 맨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가족의 무한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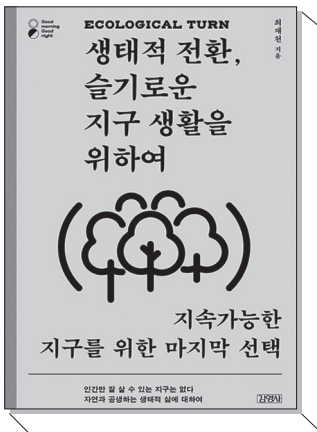
감독 : 로라 가베트, 저스트 웨인 | 개봉 2010.6.17.(다큐멘터리/92분)

“개인적인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는데
개인적 행동이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거든요.”

모든 것은 이상하게 따뜻했던 어느 겨울날 시작되었다. 영화 1도여야 하는데 21도를 기록한 2006년 1월의 어느 날, 콜린 베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다가 문득 깨닫고 만다.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병이 날 정도로 걱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지구를 위한 한 가족의 무한도전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콜린’은 1년간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해(無害)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TV를 버리고 쇼핑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년, 365일 동안 점차 하기 힘든 행동으로 발전되며 가속화 된다.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만 사먹기, 전기 사용 안 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배출 제로 등 지구를 잃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간소화 시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2살 된 딸은 점차 힘겨워하고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실수 연발, 의견 충돌! 과연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

최재천 저 | 김영사 2021

팬데믹은 일상이 되었고 지구 곳곳에 대규모 산불과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며 야생생물 개체수는 40년 전에 비해 3분의 2가 줄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 아니면 갈 곳 없는 인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평생 자연을 관찰하고 생명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실천해온 최재천 교수의 신작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들도 다양한 삶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적 삶을 제안한다.

다. 환경 재앙의 역사를 개괄하고 팬데믹에서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고갈까지 인간 존립을 흐드는 환경 문제를 살펴 보며 21세기 지구인이 실천해야 할 생태학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동안 인류는 언어적, 문화적 전환을 이루었고 기술, 로봇, 정보의 전환 등 새로운 전환을 구상해왔다. 저자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른바 ‘환경의 세기’에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이라고 역설한다. 오직 자신의 성공과 풍요를 추구해온 인간의 생태적 죄를 비판하고 현명한 인간 ‘호모 사피엔스’에서 모든 생명체와 공생하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로의 생태적 전환을 강조한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비점오염원이란 무엇일까? 비점오염 바로알고, 제대로 실천해요!



비점오염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비점오염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점오염원이란 가정, 공장, 축사, 도로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하는데요.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수집이 쉽고, 계절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연중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여 관거 및 처리장 등 저감시설의 설계와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발생량/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의 특성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볼까요? 점오염원은 인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높지만, 비점오염원의 경우 인위적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으기가 어렵고, 처리효율이 일정치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의 영향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토지개발이 가속화되고 대지/도로/주차장 등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호소의 수질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총부유물질(TSS) 기준으로 수질오염부하의 50%, 폐쇄성 수역에서 검출되는 영양물질의 80% 이상이 비점오염 물질의 영향입니다. 비점오염원에서 강우와 더불어 유출되는 토사 등 부유물질, 질소/인 등 영양염류, 고농도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수집 및 처리가 어려워 특별한 처리 없이 바로 하천으로 유출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질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거나 저서생물의 서식처를 파괴해 수생태계가 교란됩니다. 또한 토지개발로 인해 불투수율이 증가하면 강우시 토양으로 흡수되거나 증발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여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지하수 함양이 줄어들어 평시에 하천의 건천화(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거나 양이 적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생활 속 비점오염 줄이기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강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비가 오기 전에는** 공사장이나 하천주변, 폐기물 처리장 등에 비점오염물질이 비가 내리면 서 휩쓸려가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비오기 전에는 우리집 앞, 우리가게 앞거리를 청소해주세요! **애완동물과 산책 시에는 꼭 비닐봉투를 준비**하시고 배변을 수거해주셔야 합니다. 포장마차차 노점상에서 나오는 하수는 길거리 빗물받이에 바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아파트에 세탁기를 설치할 때는** 앞베란다가 아닌 뒷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설치해주세요! 앞베란다는 우수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약품, 기름찌꺼기, 페인트 등은 땅에 묻지 않으며** 무심코 물에 흘려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거리변 빗물받이에는 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세차장에서** 해서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해주세요 :) **야외 소풍이나 등산을 갈 때에는** 라면이나 찌개국물, 음료수, 술 등을 하천(계곡)에 버리면 안되며,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시는 분들은 덮개가 잘 덮여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해주세요~ **뉘시를 할 때는 많은 미끼 사용을 자제**하고 낚시 후 낚시줄, 낚시바늘은 수거해야 합니다. **뒷발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과한 비료사용을 자제**하고 유기농 퇴비를 사용해주세요~!

일상생활 속 비점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보아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환경사랑!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청소년 환경기자단

청기백기 롤링페이퍼

01. 청기백기하면서 좋았던 부분을 적어주세요

기사를 직접 작성하고 ~~이~~ 신문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쓰레기가 우리에게 어느정도 피해를 주는지 알게 되었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환경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제안,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사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세롭고 약간의 충격적이었던 점들을 나누고
알게 되어서 좋았고, 목표의 역사적 인물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고 목표에 대한 자부심 또한 올라가기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기백기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직접 환경과 글씨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저 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환경에 대해 지나치면 부분들에 대해
구민해 불수 있는 기뤼였다.

유익했던 것이 제일 좋았던 거 같았다. 구체적으로 제로 웨이트 교육이
흥미로웠고 제일 인상 깊었다.
우리 목표고에선 봉사활동 소감을 대려가 있는데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그대로 써서 제출 했는데 문장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나이의 또래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이 통한 이들과 함께 꼭 해야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제로웨이트에 대해 알게 되고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질 수 있었다.

환경백기 활동을 하여 환경 위식을 기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되어
즐거웠다. 또한, 환경영향을 끼친 슬로리폼 타일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기차단 활동뿐만 아니라 5.18 평화감상,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개항(전교) 및 기약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마켓 등 환경과 관련하여 몰랐던 점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 느끼게 되어
부듯했다. 환경 기사를 써 보며 내 주위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글쓰기 수업도 ~~받~~ 받으며
나의 작은 실천도 환경에 상당하였다.

02. 보완,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적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식보다는 발표를 여러번 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표현에 익숙해질수 있도록 하면 매우 유익할 시간을 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활동하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각되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 교육 방식 (코로나이상황 시) 코로나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이 어려워서 아쉬웠다.

없다. 그냥 좋다.

앞으로 활동 이어주세요. ㅎㅎ

제로웨이스트 확산을 위한 활동을 조금 더 진행하고 싶어요.

같은 기차단인만큼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뜨개마루 (약칭: 뜨마, 모든 걸 다 떠버림)



코바늘로 수세미를 많이 뜨실텐데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친환경아크릴수세미는 거품이 잘 생겨 세제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수세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세미에서 나오는 화학 섬유가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진정한 친환경 수세미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뜨개마루 회원들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여 천연 소재인 마, 삼베를 이용하여 쓰임을 다한 후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응이 좋아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 주문 요청을 받아 신입회원과 추천회원님들께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소정의 재료비만 받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대신할 수 있는 소창 (기저귀 천)을 행주와 손수건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재주 없는 분도 함께 하면 멋지고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뜨개 뿐 아니라 친환경 손수건 만들기, 자수, 재봉틀로 소품 만들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0~12시에 모여 즐겁게 수다 떨며 환경, 건강 정보 나누며 손뜨개를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뜨개마루 동호회 대표 조애순 010-7181-2990

에코트레킹

목포환경운동연합 동호회 에코트레킹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올바른 생각,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활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1회, 번개 1회 등 월 2회 들과 산, 바닷가의 풍광을 즐기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트레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에는 어민동산에서 출발해 평화광장과 앞선창 해안길을, 2월에는 목포해양대 정문에서 대양산단까지 뒷선창 해안길을 걸었습니다. 겨울 철이라는 날씨 조건 때문에 목포시내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3월부터는 목포시를 벗어나 신안 가란도와 장성 축령산, 무안 승달산, 영광 불갑사, 영암 월출산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트레킹 대상지를 추천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트레킹은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포환경운동연합 밴드에 트레킹 일정을 공유하고 회원들과 함께 트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대표 최정삼 010-4954-911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기억하기 캠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

여러분의 메시지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전달됩니다.

서명하기

<http://nonuke.co.kr>
위 사이트 들어가서 참고하길~



